

NEWS LETTER

2021년 12월 20일 Vol. 427

동국대학교의료원, 제9회 영축문화대상 ‘봉사실천상’ 수상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상금 1천만원과 감사패를 받았다.

영축문화대상은 월하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봉사실천상과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봉사실천상’을 수상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검진 및 연탄나눔행사와 파라미타 봉사단과 동남아 빈민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물품전달 등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채석래 의무부총장겸의료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자비 인술을 실천해 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척 영광스럽다”며“영축문화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다빈치X 로봇 이용 ‘전립선암’ 수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팀이 로봇수술시스템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형석 교수는 지난 14일 전립선암 환자 김 모씨(67세 남)에 대해 다빈치X를 이용한 ‘로봇 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했다.

로봇수술은 전립선암 등 암 적출 후에 방광 요관 문합과 같이 재건 과정이 필요한 수술의 경우 최대의 장점을 보인다. 따라서 로봇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기능적 합병증인 발기부전, 요실금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로봇수술은 암을 포함한 여러 질환의 치료를 위해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다”며“특히, 재건 과정이 필요한 수술에서는 기능적 합병증을 감소 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가 로봇 수술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손소독제 8400개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는 지난 12월 15일 코로나19확산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42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 8400개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손소독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확산 방지와 병원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부된 것이다.

권범선 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교계의 간절한 힘과 원력으로 자비의료실천을 위해 불교병원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쿨 100박스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내원중인 환자의 가족이 지난 12월 10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감사의 메시지와 쿨 100박스를 전달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되고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자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쿨은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환자 가족이 전달한 것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선별진료소와 안심외래, 병동, 미화, 보안 등 출입 통제소를 비롯해 각 분야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고루 나누어 전달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얼어붙고 침체된 가운데 환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더욱 힘을 내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